

## NICHD 아동 수사면담 프로토콜과 지속적인 면담자 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곽 금 주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이 승 진<sup>†</sup>

서울대학교 심리과학연구소

아동 전담 수사면담은 아동 진술의 신뢰성 확보와 범죄 사건의 올바른 판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아동 진술이 성폭력, 신체 학대 등 가혹한 범죄 사건의 해결에 실증적 증거로 채택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국외에서는 바람직한 수사면담 시행을 위한 면담 훈련의 필요성과 그 중요성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아동 수사면담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을 위한 면담 훈련의 구체적인 정보와 면담 훈련이 아동 진술의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술 연구 및 현장 자료 조사들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NICHD 아동 수사면담 프로토콜의 구성 및 효과성, NICHD 프로토콜에 의한 수사면담 훈련의 중요성과 면담 훈련의 구체적 절차와 구성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동 전담 수사면담자 훈련을 위한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궁극적으로 본 논문은 아동 전담 수사면담자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학문적 지식이 매우 부족한 국내 현실을 고려하여 관련 학술 연구자 및 실무자들에게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아동 전담 수사면담자 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 아동 수사면담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학문적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를 두었다.

주요어 : 아동진술, 수사면담, NICHD 프로토콜, 면담훈련, 훈련피드백

\* 이 연구는 2013년도 한국연구재단 한국사회과학연구(SSK)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sup>†</sup> 교신저자: 이승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과학연구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E-mail: sjmagiclife@gmail.com

최근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아동, 청소년이 연루된 성폭력 피해가 매년 평균 5000 건이 넘게 보고되고 있으며,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 2013. 09).

국외에서는 어린 아동들이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 법정에서 전문가가 피해 사실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진술을 하는 과정이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피해 아동이 직접 법정에서 진술하기 보다는 피해 사실을 일차적으로 조사했던 공인된 기관의 전문가들이 아동의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을 대변하고 있다. 또한, 성범죄 피해 아동 심리 치료를 포함하여 다양한 물질적, 정서적 지원을 위한 전문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이수정, 2009). 이와 같은 아동 전담 수사면담자를 위한 교육 및 훈련의 일차적 목적은 아동 성폭력 및 신체 학대와 같은 범죄 사건의 목격자 혹은 피해자 아동을 위한 표준화 및 구조화된 수사면담 지침을 수사면담자에게 제공 및 교육하고, 전문 면담자들을 양성하여 면담자의 역량과 무관하게 질적으로 우수한 수사면담을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본격적인 수사면담에 앞서 아동과 충분한 라포를 형성하는 방법, 아동의 연령과 인지 발달적 수준이 고려된 단어와 문장들로 면담 질문을 구성하는 방법, 개방적이고 친숙한 의사소통을 면담의 전 과정에 걸쳐 원활하게 유지하는 방법 등을 면담자 훈련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나아가 면담을 통해 획득된 아동의 진술을 법정에서 실증적 증거로 제시하는 방법, 재판 과정에서 아동 진술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변호하는 법 등과 관련한 법률적 지식도 전문적인 면담 훈련을 통해 전달할 수 있다.

아동 발달과 관련된 학문적 지식과 형사사

법 체계와 관련된 법률적 지식은 아동 전담 면담자가 갖추어야 할 필수 요건이다(Quas & Sumaroka, 2011). 이러한 전문 지식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면담자들은 면담자 훈련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관련 실무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또한 선행되어야 한다. 면담자들의 개별 역량에 의존하지 않은 보다 바람직한 수사면담 실시를 위해서는 학술 연구자들, 관련 행정 부서의 실무자들, 법조계 전문가들 모두가 면담자 훈련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국외에서는 십여 년 전부터 아동 수사면담자들을 위한 면담 훈련의 구체적인 절차와 면담자 훈련이 아동 진술의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술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Katz, Hershkowitz, & Lamb, 2010; Lamb, Sternberg, Orbach, Esplin, & Mitchell, 2002; Lamb, Sternberg, Orbach, Hershkowitz, Horowitz, & Esplin, 2002).

국내에서도 아동 성폭력 및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와 더불어 성폭력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 평가의 한계와 전망(조은경, 2010), 아동 성폭력 피해 진술에 대한 신빙성 분석 도구들의 타당도 연구(이수정, 2010), 효율적 수사면담을 위한 인지 면담 개발(김시업, 전우병, 김미영, 2006) 등 수사면담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경험적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미정(2009)에 따르면, 국내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폭력전담제’는 아동 전담 면담자들의 소속 및 신분, 업무 분담 면에서 매우 불안정하고 모호한 상황에 있다. 예를 들어, 아동 전담 면담자들은 일선 경찰관서의 여성·청소년계가 아닌 과학 수사계에 소속된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평균 업무량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력이 여유로

운 과학 수사계에서 성폭력 피해자 조사업무와 과학수사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담’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성폭력 전담수사관들의 보직이 짧은 기간 이내에 바뀌고 있어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전담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아동성폭력사건 조사 과정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들 중 하나는 아동 전담 면담자들이 면담 과정에서 빈번하게 범하는 과오들이다. 예를 들어, 아동의 연령에 적합하지 않는 어휘 사용, 아동의 인지 발달적 수준을 벗어난 의사소통 등에 의해 유도된 아동 회상 보고의 오류는 재판의 결과뿐만 아니라 차후 아동 삶의 복지와 안녕에 절대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아동의 연령에 따른 피암시성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유도적 정보가 포함된 신문을 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아동의 기억을 왜곡한 실수들이 국내 사법제도 내에서 비일비재하다(황은영, 2010). 또한 아동 진술을 획득하는 과정의 논리성 및 합리성 부족으로 인해 아동 진술이 법정에서 증거 자료로 채택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민유숙, 2009). 이러한 문제들은 아동 전담 면담자들에 대한 지속적이며 충분한 전문적 훈련과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미국 법정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성범죄 피해 아동 조사과정 및 심리 치료 등 여러 가지 지원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장애인 진술조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이 실시되고 있지만 이는 소정의 일회성 교육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경찰백서, 2013).

또한, 한국의 경우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들 대부분이 피

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고려하거나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기 보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판단’에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진술 조사 과정은 신빙성 있는 진술 획득을 위한 절차에도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 아동 및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진술 조사 과정은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조사를 통해 수집된 진술 자료에 의존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게 함으로써 수사 기관의 판단 정확성을 오히려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김태경, 윤성우, 서민재, 김경옥, 한은미, 2013).

아동 수사면담자는 단순히 아동을 많이 접해보았다는 경험만으로는 아동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 따라서 수사사건과 관련된 충분한 법률적 지식과 함께 아동수사면담과 관련된 학술 연구 및 아동조사과정에 대한 훈련, 수사실무와 관련한 자료 분석 등을 통한 체계적인 전문화 과정이 필요하고 그 성과를 훈련 지침에 반영하여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아동의 발달단계와 지적 상태에 알맞은 조사기법에 대해 완벽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아동전담검사 및 전담 수사면담자들 모두에게 아동의 발달적 특성과 관련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절차는 아동조사 면담의 전반적인 절차와 구성에 대한 수사면담자들의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 면담의 전문성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아동 수사면담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면담자 훈련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외 아동 증언 분야

의 학술 연구 및 현장 자료 조사들을 바탕으로 개발된 후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아동 전담 수사면담을 위한 면담자 훈련의 구체적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 NICHD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미국국립아동인간발달연구소) 프로토콜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아동 수사면담을 위한 지속적인 면담 훈련의 중요성과 면담자 훈련 과정이 갖추어야 하는 필수 조건들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 지칭하는 ‘수사면담자’는 연구의 목적 및 범위에 부합되도록 다양한 종류의 범죄사건에 연루된 아동들을 면담하는 모든 실무자들 즉, 검사, 형사 등의 법조계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윈스토프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 등과 같은 곳에 근무하는 아동 진술조사 전문 인력 모두를 포괄적으로 일컫는다.

아동 수사면담자 훈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현재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NICHD 프로토콜의 구성과 그 효과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 NICHD 아동 수사면담 프로토콜의 구성

현실적으로 수사면담자들이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면담을 올바르게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각, 즉, ‘자가평가(self-evaluation)’ 혹은 ‘자가감찰(self-monitoring)’을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면담자의 개별 역량이나 면담 경험 등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율적인 면담도 수사면담의 결과가 아동에게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권장될 수 없다. 따라서 수사사건에 연루된 모든

아동들에게 최대한 질적으로 우수한 면담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구조화된 아동수사면담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Lamb, Hershkowitz, Orbach, & Esplin, 2008).

NICHD 프로토콜은 학술 연구자들과 아동 면담 전문가, 변호사, 경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합하여 개발된 수사면담 지침서이다. 이 프로토콜은 아동의 연령에 따른 기억 역량, 성인과의 의사소통 능력, 암시적 정보의 취약성 등 아동 발달 분야의 학술 연구들과 법정에서 요구하는 진술의 형태, 면담자의 면담 태도, 면담 횟수, 수사사건의 특성(예: 사건의 심각성, 사건 발생의 빈도, 사건의 혐의자와 아동의 혈연관계 등) 등이 아동 진술의 신빙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연구들의 결과를 다각적으로 반영하여 개발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NICHD 프로토콜은 구조적 형태의 면담으로 면담의 시작 단계부터 마무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부 절차들이 표준화되어 있어 수사사건의 특성이나 각 면담자의 면담 경험에 따른 개별적 역량과 주관적 해석이 조사면담의 과정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Lamb et al., 2008).

구체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도입 단계에서는 면담자가 자신을 소개하고 아동이 할 일과 기본적인 규칙에 대해 설명한다(아동은 “모르겠어요”, “기억 안 나요”, “이해가 안 돼요” 등의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하며, 면담자의 말을 수정할 수 있다). 더불어 많은 사법권에서는 아동이 진실과 거짓 진술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질문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이 추가될 수 있다. 다음은 라포 형성 단계로, 이는 두 가지 하위 단계로 구성된다. 첫째, 편안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과 면담

자 간 라포를 형성한다. 둘째, 아동이 개방형 질문에 익숙해 질 수 있도록 최근 겪은 중립적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한다. 그리고 라포 형성 이후 연결되는 前실질적 단계(pre-substantive phase)와 실질적 단계(substantive phase) 사이 전환 단계(transitional part)에서는 수사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가능한 비암시적 질문과 개방형 질문을 사용한다. 단, 면담자는 아동이 대상 사건을 파악하기 힘들어 하는 경우 선택형 질문을 사용하고 대부분 선택형 질문은 아동이 이전에 진술하지 않은 주제에 대한 네/아니오 질문으로 구성된다.

아동이 진술을 시작하면 초대법으로 자유 회상 단계를 시작한다(예; ‘모두 이야기해보렴’). 아동의 자유 회상이 끝나고 나면 면담자는 구체적인 사건 정보에 대해 질문하기 위해 추가 반응 (follow-up: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있었니?’)이나 단서 초대법(cued invitation: ‘네가 말한 그 사람에 대해 더 이야기해보렴’)을 사

용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자유 회상법을 사용하여 최대한 오염되지 않은 진술을 이끌어 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자유 회상법이 끝난 후에만 면담자는 직접적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유형의 질문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중요한 정보가 도출되지 않았다면 면담자는 한정적으로 선택형 질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아동의 진술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암시적 발언은 반드시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 NICHD 아동 수사면담 프로토콜의 효과성

국외에서는 NICHD 프로토콜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다른 절차

표 1. NICHD 프로토콜에서 제시하는 면담자의 발언 유형(Lamb, Orbach, Hershkowitz, Esplin, & Horowitz, 2007)

유형	설명
촉진 (facilitator)	지속적 반응을 이끌어 내기 위한 비암시적 (non-suggestive) 반응 - “응”, “그래”, “아..그렇구나”, 아이의 마지막 말 반복
초대법 (invitation)	아동이 사건에 대한 정보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형 질문 -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이야기해 보렴”, “더 이야기 해 줄 수 있겠니?”
단서초대법 (cued-invitation)	아동이 이미 언급한 부분에 재 집중함으로써 사건 정보에 대한 자유 회상 유도 - “[사건, 행동, 사물]에 대해 이야기했었지. 그것에 대해 더 이야기 해 줄 수 있겠니?”
직접적 (directive):	아동이 이미 언급한 정보에 재 집중함으로써 보다 세부적인 정보 도출 (주로 wh- 질문 이용) - “언제 그 사건이 일어났니?”, “그 사람이 어디를 만졌니?”
선택형 (option-posing)	아동이 언급하지 않은 측면이나 세부 사항에 집중하도록 유도 면담자의 말에 긍정, 부정, 혹은 선택 - “아팠니?”, “옷 속을 만졌니 위를 만졌니?”
암시적 (suggestive)	아동이 말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 가정, 혹은 특정 대답을 유도 - “그 사람이 너한테 뽀뽀하려고 했지?”

를 사용할 때에 비해 NICHD 프로토콜을 사용할 때 면담자가 유도 및 암시적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낮으며, 면담자의 반복 질문이나 권위에 의해 아동이 이전 진술을 반복하거나 그릇된 진술을 보고하는 오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Lamb et al., 2009).

또한, 미국, 영국, 이스라엘, 캐나다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같은 조건에서 프로토콜을 사용하지 않은 면담과 비교했을 때 NICHD 프로토콜을 이용한 면담에서 면담자는 최소 세 배 이상 개방형 질문을 제공하였다(Cyr, Lamb, Pelletier, Leduc, & Perron, 2006; Lamb, Orbach, Warren, Esplin, & Hershkowitz, 2006; Lamb, Sternberg, et al., 2006). 특히 수사 사건과 연관되는 정보의 약 절반 이상, 성폭행 피해에 대한 첫 언급 중 80% 이상이 면담자의 개방형 질문에 의한 자발적 회상으로 도출되었다. 그리고 NICHD 프로토콜에 따라 면담을 실시했을 경우 개방형 질문으로 중요한 정보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선택형 질문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jorklund, Bjorklund, Brown, & Cassel, 1998; Memon, Wark, Holley, Bull, & Köhnken, 1996). 이와 같은 현장 조사뿐만 아니라 실험실 연구 결과에서도 모두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얻은 정보가 선택형 질문에 의해 얻은 정보에 비해 정확하다는 것이 반복적으로 검증되어 왔다(Lamb & Fauchier, 2001; Lamb et al., 2007). 또한, NICHD 프로토콜에 따라 면담을 실시했을 경우 아동 목격자에 대한 면담자의 촉진적(facilitators), 지지적 발언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아동이 수사에 보다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Hershkowitz, Orbach, Lamb, Sternberg, & Horowitz, 2006).

그렇다면 어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면담에서도 NICHD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까? 분명 미취학 아동과 취학 아동의 회상 능력과 기술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Schneider & Bjorklund, 1998). 어린 아동들은 더 적은 양의 정보를 기억하고 그에 대해 짧게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Baker-Ward, Gordon, Ornstein, Larus, & Clubb, 1993). 또한 어린 아동들은 암시적 질문에 대해 틀린 정보를 제공하거나 강제선택형 질문을 받을 때 틀린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Poole & Lindsay, 1998; Walker, Lunning, & Eiltz, 1996). 따라서 일부 전문가들은 NICHD 프로토콜이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우려를 표명해 왔다(Lyon, 1999). 하지만 어린 아동들이 더 적거나 짧은 정보를 제공한다고 해서 이들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아니다(Oates & Shrimpton, 1991). Lamb 등(2007)의 연구자는 4-6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면담에서 NICHD 프로토콜의 효과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였다. 그 결과 높은 연령의 아동들이 낮은 연령의 아동들에 비해 더 많은 세부 정보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NICHD 프로토콜의 사용은 전 연령대에 걸쳐 아동의 자발적인 회상을 유도함으로써 아동의 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아동이 보고하는 정보의 양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아주 어린 아동들조차 자유 회상에 반응하여 수사에 가장 필요한 정보(언제, 누가, 무엇을)를 제공하였고, 그 결과 강제선택형 질문과 같은 위험성이 높은 질문 사용을 줄일 수 있었다. 특히 4세 정도의 아동에게 단서 초대법을 이용하는 것, 아동이 이미 언급한 것과 관련하여 질문하는 것은 강제선택형 질문을 이용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얻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경험, 특히 자신이 이미 언급한 경험에 대해 다시 기억하는 것은 그 경험에 대한 정보를 작은 단위를 쪼갤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단서 초대법은 어린 아동이 스스로 과거 사건을 재구성하고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많은 면담자들이 어린 아동들을 대상으로 질문할 때는 선택 사항들을 제공하거나 암시적 질문을 해야 대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질문에 의해 획득되는 정보들은 대부분 부정확하다. 한편 부가적인 발견으로 Lamb 등(2007)의 연구에 따르면 행동에 바탕을 둔 신호(action-based cues)는 연령과 관계없이 다른 모든 유형의 신호에 비해 효과적이었지만, 시간 신호(time-segmenting cues)는 8세 이후부터 효과를 보이기 시작하며 9-10세 정도의 아동에게 사용할 때는 더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이에 대해 시간 개념에 대한 이해가 나이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하였다(Orbach & Lamb, 2007).

마지막으로 Dion 과 Cyr(2008) 연구에 의하면 일반 아동들뿐만 아니라 낮은 인지 능력을 지닌, 불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캐나다 아동들을 대상으로 NICHD 프로토콜 실시해 보았을 때도 선행 연구들과 유사하게 긍정적인 효과성이 입증되었다.

또한, 면담자들은 NICHD 프로토콜을 이용할 때 피해자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닌지 판단하기 수월한 것으로 보인다(Hershkowitz, Fisher, Lamb, & Horowitz, 2007). 범죄 수사가 아닌 단계적 사건에 대한 묘사와 관련된 연구들은 진술타당도분석(SVA: statement validity analysis), 준거기반 내용분석(CBCA: criterion based on content analysis)(Akehurst, Koehnken, & Hoefler, 2001), 면담 중

비언어적 표현의 관찰(Ceci & Crotteau-Huffman, 1997)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전문가들에 의해 진술 신빙성을 확보하였다. 또 다른 연구진들은 비전문가들의 평가법을 사용하거나(Vrij & Van Wijngaarden, 1994)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성과를 비교해 왔다(Jackson, 1996). 이러한 연구들에서 진술의 진위 여부에 대한 정확도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고 평균 3분의 1 정도는 부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전문가들 역시 실제 경험한 사건에 대한 진술과 경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한 거짓 진술을 구분하지 못하며 실제로 전문가들이 비전문가들이나 일반 학생들에 비해 매번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Leichtman & Ceci, 1995).

아동 진술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평정자간 신뢰도 역시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예를 들어 Horner, Guyer 와 Kalter(1993a, 1993b) 연구의 신뢰도 범위는 .10에서 .90였으며, Finlayson과 Koocher(1991) 연구의 신뢰도 범위는 0-25%부터 75-100%였다. Jackson과 Nuttall (1993)의 연구에서 같은 기록에 대한 평가는 “학대가 일어났다고 매우 확신함”부터 “학대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매우 확신함”에 걸쳐 이루어졌다. 높은 평정자간 신뢰도가 항상 그 판단이 옳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낮은 신뢰도는 적어도 그 평가 도구에 의한 결과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음의 의미한다. 반면 CBCA와 같은 도구를 이용한 현장 연구들은 아동 보고의 신뢰성을 보다 잘 구별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Lamb et al., 1997).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에서 진술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에 대한 의문 역시 존재한다(Wells & Loftus, 1991). 진술한 사건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실이라고 판명된 진술이 거짓 진술보다 더 높은 CBCA 점수를 받은 경우에도 그 차이는 작았으며 현장에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을 정도로 잦은 오류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Hershkowitz, Lamb, Sterberb 와 Esplin (1997)의 연구는 면담자가 피해 아동으로부터 서술형 대답을 이끌어냈을 때, 다시 말해, NICHD 프로토콜을 이용하였을 때 아동의 진술에서 CBCA를 평가하는 능력이 강화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결국 NICHD 프로토콜은 아동으로부터 질적인 진술을 유도할 수 있는 권고 방안을 장려하기 위해 설계되었지만, 넓은 의미에서 범죄 수사 전문가들이 아동 진술을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학대 아동에 대한 정의(justice) 에도 기여하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NICHD 프로토콜 이외에도 다양한 수사 면담 기술들이 개발되어 왔다. 미국에서는 Corner House's RATAC(rapport, anatomy identification, touch inquiry, abuse, and closure)로 알려진 Finding Words 기술(Walters, Holmes, Bauer, & Vieth, 2003)이 공식적으로 많은 사법권에서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RATAC로 훈련 받은 면담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면담을 진행하는지에 관해서 공식적으로 출판된 연구는 없다. 연구자들이 RATAC와 같은 기술은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데에 무리가 있다고 밝힌 만큼 이러한 기술에 대한 평가가 시급하다.

한편, 영국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인지 면담(Cognitive Interview; Fisher, Brennan, & McCauley, 2002)은 NICHD 프로토콜과 유사한 인지 이론을 차용하고 있다. 또한 인지 면담은 다른 표준적 면담 방법에 비해 더 많은 세부 정보와 정확한 정보를 도출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Köhnken, Milne, Memon, & Bull, 1999). 실제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평가된 적은 없지만 인지 면담 중 맥락 회복(Mental Context Reinstatement)의 일부는 NICHD 프로토콜의 효과를 향상시켰으며 다른 부분들도 유사한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Hershkowitz, Orbach, Lamb, Sternberg, & Horowitz, 2001).

여전히 NICHD 프로토콜은 새로운 연구 결과들을 적용시키며 개발 단계에 있지만 다른 보편적인 면담 지침보다 더 유용하고 실제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방법을 일러주고 있다. 최근 Hershkowitz, Lamb, Katz 와 Malloy(2013) 연구에서는 수정된 NICHD 프로토콜(Revised Protocols = RP)과 기존의 NICHD 프로토콜(Standard Protocols = SP)의 차이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RP는 면담자가 암시적이지 않으면서 보다 지지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방법과 아동과 효과적으로 라포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개선된 프로토콜로, 라포 형성 단계에서 아동은 최근 경험에 대한 자유 회상 서술(free recall narrative)을 하고, 면담자의 개방형 질문을 통해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정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또한 개정판은 면담자들에게 아동의 경험에 대한 흥미를 표하고, 아동의 이름을 부르고, 아동이 경험한 사건에 대해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으로 기술하도록 격려하고, 아동의 보고 내용이 아닌 서술을 위한 노력과 의지에 대한 정적 강화를 제공하며, 면담에 대한 아동의 감정에 공감을 표할 것을 권고한다. 연구 결과, 비록 총 정보의 양에 대한 집단 간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RP 면담의 아동은 실질적 단계에서 범죄사건 언급에 대해 주저하는 태도를 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면담의 후기 단계를 살펴본 결과 RP 사용 면담자들은 학대 사



건에 대한 주제를 다루기 시작할 때, 보다 많은 비암시적인 지지를 제공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RP 조건에서 아동들이 개방형 질문에 반응하여 보다 많은 자유 회상적 진술을 제공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 개방형 질문에 대한 아동의 적극적인 반응은 결국 아동의 높은 협력을 의미하며, 진술의 정확성과 유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고려되었다(Hershkowitz et al., 2013).

이처럼 NICHD 프로토콜을 통해 획득한 아동의 회상 보고는 정확하며 법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숙련된 면담자라 할지라도 NICHD 프로토콜의 지침을 따르고 훈련 기간 이후에 지속적으로 면담을 검토하여 올바른 면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면담자들이 NICHD 프로토콜의 지침을 잘 따르고 지속적인 재검토 과정을 거친다면,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면담에서도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Lamb et al., 2007). 이러한 이유로 NICHD 프로토콜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물론 수사면담자 훈련의 중요성에 대한 지각이 필요하다.

### NICHD 프로토콜에 따른 수사면담 훈련의 중요성

아동 전담 수사면담자들이 지속적인 면담 훈련을 통해 충분히 학습해야 할 사항들에는 면담 전 아동과의 충분한 라포 형성 방법, 아동의 연령에 적합한 질문 제공 방법, 아동의 피암시성 수준에 대한 지식 등이 있다. 즉, 면담자 훈련은 구조적 면담의 세부 절차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익히고 그 지침에 따른 면담을 연습해 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아동 성

폭행, 신체 학대, 방임 등 다양한 사건들의 독특한 특성과 아동의 연령, 생활환경, 사건과 관련된 아동의 사전 경험들의 특성 등(예: 사건의 반복성 및 지속성, 가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표준화된 면담의 세부 절차들을 융통성 있게 조절하는 방안들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해부학 인형, 인체 해부도 사용, 그림 그리기, 시각적 단서 제공 등과 같은 부가적 도구들의 사용과 진실 유도 및 서술 정교화 훈련 기법 등 다양한 면담 기법들의 적절한 적용(Brown, 2011),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해칠 수 있는 부적합한 어휘 및 질문 구조 등과 관련된 학술 연구 결과들과 현장 자료 조사(Plotnikoff & Woolfson, 2009) 등 전문적 정보들도 지속적인 훈련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영국에서 실제 아동 수사면담 사례들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동 전담 수사면담자들은 아동 진술과 관련된 기초 및 응용적 연구의 함의들과 표준화된 수사면담의 세부 절차 및 주의 사항 등을 숙지한 후에도 실제 수사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지식들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ederborg, Orbach, Sternberg, & Lamb, 2000). 그러나 면담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훈련 피드백이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면담자들은 교육 받은 사항들을 실제 수사면담 시 성공적으로 적용하였다(Lamb et al., 1996; Sternberg, Lamb, Davies, & Westcott, 2001). 예를 들면, 면담자 훈련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면담자들은 실제 아동 수사면담 시 개방형 질문 위주로 아동의 회상 보고를 확보하였고 유도 및 암시적 질문의 횟수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감소하였다(Katz & Hershkowitz, 2010). 그러나 면담 훈련의 참여와 면담 피드백이 중단되는 경우, 다시 이

전의 면담 형태, 즉, 강제 선택형 질문(예: 네, 아니오)의 빈도가 높은 면담을 진행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Lamb, Sternberg, Orbach, Esplin, & Mitchell, 2002). 이는 면담자의 고착된 면담 습관 개선의 어려움과 지속적인 면담 훈련의 중요성에 대한 함의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Lamb, Sternberg, Orbach, Hershkowitz 등(2002)의 연구진은 4가지 훈련 모델의 효과 비교를 통해 지속적인 훈련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먼저 모든 훈련 조건에서 면담자는 면담 방법의 바탕이 되는 아동의 기억, 언어, 소통, 사회 발달 연구에 대한 이론적 교육을 받았다. 첫 번째 훈련 조건은 오직 이러한 교육만을 제공했다. 두 번째 훈련 조건에서 면담자는 과학적 이론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前실질적 라포 형성 단계에서 구조화된 방법을 사용하도록 훈련 받았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면담 조건에서 면담자는 과학적 이론과 구조화된 NICHD 면담 프로토콜의 전반적인 내용을 교육받고 철저한 감독 하에 프로토콜을 사용하도록 했다. 세 번째 조건에서 면담자는 강도 높은 훈련 과정을 거치고 매달 실제 현장 면담을 분석하는 집단 회의에 참석하였다. 또한 각각의 현장 면담에 대한 자세한 피드백을 제공받았다. 네 번째 조건에서 면담자들은 세 번째 조건의 면담자들과 마찬가지로 매달 집단 회의에 참여했지만 개인적인 감독이나 피드백은 받지 않았다. 각기 다른 4가지 훈련 조건의 효과는 면담자가 선택형 질문과 비교하여 개방형 질문을 사용한 정도, 개방형 질문을 이용하여 얻은 정보의 양, 면담자가 실질적 면담에 소요한 시간 등에 따라 분석되었다. 면담자들의 성과는 훈련 6개월 전 동일한 면담자들이 비슷한 연령대의 아동들과 진행한 면담들과 비교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면담자가 NICHD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정기적인 훈련 워크샵에 참석했을 때, 다시 말해, 올바르게 확립된 이론과 지속적인 훈련이 바탕이 되었을 때 성폭력 피해자로부터 얻은 정보가 질적으로 장기적 향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Lamb 등(2002)은 면담자들에 대한 감독과 피드백이 종료된 후의 역효과에 대해 보여주었다. 면담자들이 지속적으로 면밀한 감독과 피드백을 받을 당시의 면담과 그러한 감독과 피드백이 종료되고 6개월 후의 면담을 비교했을 때 후자의 경우 면담의 질이 확실하게 떨어졌다. 개방형 질문의 사용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으며, 선택형 질문의 사용이 증가하였고, 선택형 질문이 처음 사용되는 시점도 빨라졌다. 이는 결과적으로 자유 회상을 이용한 피면담자의 응답을 감소시켰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의 결과들은 모두 지속적인 수사 면담자 훈련의 중요성을 증명한다.

### 아동 수사면담자 훈련의 구성 및 내용

아동 수사면담자 훈련은 보편적인 면담 특성들 이외에도 아동 수사면담 시 특별히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들에 대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경험이 풍부한 면담 전문가들이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동료 면담자들 간에 공동체적 단합의 기회를 마련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초기 면담자 훈련은 일반적으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면담자들은 일차적 훈련이 종결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면담 훈련에 참여하고 피드백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NICHD 아동수사면담프로토콜은 효과적인

아동 전담 수사면담자 훈련 및 피드백에 대한 예를 제시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 훈련 방법이 이상적인 아동 전담 수사면담자의 훈련 절차로 미국, 영국, 스웨덴,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Cederborg et al., 2000; Lamb et al., 2009; Orbach, Hershkowitz, Lamb, Esplin, & Horowitz, 2000; Stewart, Katz, & La Rooy, 2011). 따라서 우선적으로 이 프로토콜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 수사면담자 훈련의 구성과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NICHD에서 제시하는 면담 훈련의 구성 및 내용

##### 면담 훈련의 긍정적 환경 조성 단계

성공적인 면담자 훈련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긍정적 훈련 환경의 조성이다. 적정 수준의 긴장은 훈련의 집중력 향상을 위해 필요할 수 있지만 훈련에 참여한 면담자들과 훈련 담당자의 관계가 적대적이거나 훈련 환경이 경직되어 있는 경우 성공적인 면담 훈련의 시행은 어렵다. 따라서 개방적이고 지지적인 훈련 환경의 조성은 면담 훈련에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 훈련에 참가한 동료들과 원활한 친밀감 및 상호 이해와 존중을 형성하는 것은 원활한 의사소통 유지를 가능하게 하며 이는 면담자가 수사면담에 앞서 아동과 충분한 라포를 형성하는 근원적 이유와 일맥상 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면담의 세부 절차 학습 단계

긍정적 환경이 조성되고 나면 실제 면담 사례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구조적 면담의 세부 절차에 대한 훈련을 시작한다. 아동 수사면담

의 세부 절차에 대해 이승진(2012)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우선 면담자는 라포 형성에 앞서 아동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본 면담에서 아동의 주요 회상 과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한다. 그리고 면담자는 아동에게 회상 보고서 구체적 진술의 필요성, 사실적 정보만을 서술하는 것의 중요성, 대화의 기본 규칙 등을 상세히 설명해준다. 예를 들어, 면담 과정에서 아동은 언제든지 면담자의 질문에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에는 언제든지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혹은 ‘질문이 이해되지 않는다’와 같은 솔직한 응답이 가능함을 명확하게 전달한다. 면담의 주요 목적과 진술의 기본 규칙들을 아동이 충분히 이해하고 나면 면담자는 본격적인 수사면담에 들어간다(p 79).

이와 같은 세부 절차를 학습하고 나면 면담자들은 ‘역할극(role play)’을 통해서 면담을 직접 실시해 본다. 면담자들은 역할극을 통해 구조화된 수사면담의 절차를 충분히 습득하고 면담의 미흡한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상호 피드백을 제공해 준다. 이와 같은 절차는 수사면담 실시에 대한 면담자들의 불안 감소와 자신감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Lamb et al., 2009).

나아가 면담자들에게 수사면담이 질적으로 우수할수록 피해자 아동으로부터 경험한 혹은 목격한 사건에 대해 보다 신빙성 있는 진술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과 아동의 신뢰로운 진술은 아동 삶의 안녕과 복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상기시켜 아동 수사면담에 대한 책임 의식을 고양시키도록 한다.

### 면담자와 관련 실무자들의 개방적 토론 단계

초기 면담자 훈련은 수사면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이외에도 재판 과정에서 수사면담관이 직면하는 현실적 난관들에 대한 논의와 숙련된 면담 전문가의 실질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법률적 제도와 수사사건의 특성에 따라 법정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다르기 때문에 기소 측 및 피고 측 변호사들을 초빙하여 아동 수사면담의 올바른 절차 및 법정에서 아동 진술의 증거적 활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전문적인 면담 훈련의 부족 및 과도한 업무량에 대해 면담자와 관련 실무자들이 개방적으로 토론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 면담 훈련 마무리 단계

훈련 과정에서 학습한 주요 내용을 개별적으로 정리하고, 훈련을 통해 얻은 깨달음과 아동 수사면담에 대한 의문 사항들, 바람직한 면담의 진행에 대한 심리적 부담 혹은 불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누구로부터 개별 혹은 그룹 면담 훈련과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받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한다.

요약하면, 초기 면담자 훈련은 면담자들이 아동 수사면담에 대한 의견, 태도, 신념 등을 나누어 전문가로서의 공동체적 의식을 형성하고, 보다 경험이 풍부한 실무자

들로부터 고견을 접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다양한 연령에 따른 아동의 기억 및 언어적 능력, 시간, 장소, 신체 접촉에 대한 이해 정도, 경찰이나 판사 등이 갖는 권위에 대한 아동의 순응도 등 아동 진술과 관련된 학문적 전문 지식 역시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나아가 수사면담의 기본 규칙, 아동의 연령에 따른 적절한 라포 형성법, 아동의 기억 향상을 위한 적절한 부가적 단서 제공법 등 아동 수사면담 과정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전문지식과 실질적 정보를 활용하여, 예를 들어, 수사면담 시 개방형 질문에 대한 아동의 반응적 특성을 다룬 학술 연구의 결과들과 실제 수사면담에서 아동의 반응들을 비교하여 상충되거나 일치하는 부분들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 또한 시도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료 면담자들과의 체계적인 역할극을 통해 개방적이고 비판적인 상호 피드백의 환경을 만들고 각 면담자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다.

### NICHD에서 제시하는 면담 훈련 피드백의 구성 및 내용

#### 개별 면담 피드백의 구성

개별 면담 피드백은 아동 수사면담이 시행된 즉시 현장에서 제공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면담의 장단점에 대한 피드백은 면담 시행 직후 논의될 때 가장 효과적이다. 즉각적인 피드백은 면담과 관련된 면담자의 기억이 가장 우수할 때 제공되기 때문에 다음 면담에서 동일한 실수를 범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

다. 따라서 수사면담 진행 도중 짧은 휴식 시간을 갖고 그 휴식 시간 동안 동일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파트너나 면담 훈련에 참여한 동료가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수사면담이 마무리되고 난 즉시 임무 수행 보고 과정에서 전문가가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보통 개별 면담 피드백은 훈련 참가자보다 아동 수사면담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담당하는 것이 좋으며 연구자들은 피드백의 이상적 횟수는 3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라고 제안한다(Stewart et al., 2011). 개별 면담 피드백은 면담자가 실시한 수사면담 중 특히 까다로웠던 면담 사례를 선택하여 집중 분석해 보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특히 녹화된 면담 사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찰해 보며 면담자와 아동의 의사소통적 부분 이외에도 면담자 및 아동 개개인의 비언어적, 준언어적 태도와 특성까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별 피드백 미팅 전 훈련자와 면담자는 선택한 면담 사례를 각자 꼼꼼히 살펴보고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후 미팅에 참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팅 주제가 ‘개방형 질문에 대한 아동의 응답 특성’이라고 하면 면담자가 제공한 개방형 질문의 횟수, 개방형 질문에 따른 아동의 전체 진술량, 진술 내용의 특성 등을 정리하여 훈련자와 면담자가 서로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는 식으로 미팅을 진행할 수 있다. 피드백은 그 날 미팅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들을 요약하고 다음 미팅의 주제를 상의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개별 피드백 미팅 후에는 면담자가 훈련자의 조언들을 검토하고 숙지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이 중요하다. 개별 피드백 자료들이나 면담 전사 자료, 면담 평가 자료들은 훈련자와 면담자 모두 항상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 일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개별 피드백 미팅은 각 면담자의 단점이나 미흡한 부분들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피드백 미팅의 횟수가 증가할수록 면담자의 면담 수준은 질적으로 향상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개별 면담 미팅에서 훈련자가 개방적이고 비판적인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면담자와 훈련자 사이의 돈독한 신뢰와 상호 존중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그룹 면담 피드백의 구성

그룹 면담 피드백은 2가지 형태가 있다. 동료 면담자들과 함께 초기 면담자 훈련을 통해 학습한 바람직한 아동 수사면담 절차를 반복 훈련하는 형태가 있고, 숙련된 면담 훈련 전문가가 면담자 훈련에 참여한 그룹 전체에게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형태가 있다. 미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에 따르면 면담 훈련은 숙련된 면담자보다 현장에서 함께 수사면담을 시행한 동료 면담자들의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인 질적 향상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Stewart et al., 2011). 현재 국외에서는 각 지역 사회 혹은 담당 행정 부서에서 동료 면담 평가의 세부적인 구성이나 진행 방식을 자유롭게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국외에서도 면담자 동료 평가가 아동 수사면담의 질적 향상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와 관련된 실증적 연구들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룹 면담 피드백은 실시된 수사면담을 전체적으로 평가하거나 특정 사항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피드백 결과는 전체 그룹의 구성원들과 공유되기 이전에 그 면담을 실시한 면담자에게 먼저 제공할 필요

가 있다. 그리고 면담자의 동의 후 일부 피드백들을 발췌하여 그룹의 구성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권장된다. 예를 들어, 아동 수사면담의 기본 규칙들이 효과적으로 적용되었는지, 폐쇄형 질문이 제공되기 이전에 개방형 질문이 충분히 제공되었는지, 아동의 연령에 적합하지 않은 어휘의 사용은 없었는지, 서술적 응답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었는지 등을 중심으로 논의할 수 있다. 또한 수사사건의 특성들을 세분화하여 특정 정보(예, 혐의자, 사건이 발생한 날짜, 사건의 발생 위치 등)에 대해 아동의 자발적 보고가 가능하도록 질문이 구성되었는지 등도 논의할 수 있다. 한편 그룹 피드백은 아동 수사면담의 질적 향상 이외에도 동료 면담자들 사이의 공동체적 교감 형성의 역할과 차후 면담 훈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동기 부여의 역할도 할 수 있다. 또한 면담자들은 다른 동료의 면담을 관찰함으로써 긍정적 혹은 부정적 면담 태도들을 살펴볼 수 있다. 개별 피드백 미팅은 면담자와 훈련자 둘이서 진행하기 때문에 피드백의 내용이 명확하고 특정 부분에 대한 보완이나 개선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룹 피드백은 피드백의 내용이 광범위하거나 모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드백 내용을 그룹의 구성원들에게 가능한 명확하게 제시하고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바람직한 면담 피드백의 요건

성공적인 면담 피드백을 위해서는 면담자, 면담 훈련 전문가, 법정의 면담 감독관들이 각 면담 사례들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면담 피드백을 위해서 사전에 녹화된 실제 면담 자료나 전사된 면담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 때 주의할 사항은 훈련이나 피드백을 위한 면담 자료들은 재판이 종결된 사건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의 수사면담 자료를 면담 훈련이나 피드백에 활용하는 것은 획득된 아동 진술의 신빙성 평가에 대한 논쟁을 유도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지금까지 NICHD 아동 수사면담 지침에 제시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면담자 훈련의 세부 구성과 내용, 피드백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Lamb et al., 2009; Stewart et al., 2011).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성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 아동 진술이 점차 중요해지면서 성폭력특별법 제 21조 2에 ‘성폭력 피해자 전담조사제’ 조항을 신설하여 성폭력 범죄 수사면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을 교육받은 전담 검사와 아동 전담 수사면담자를 검찰 및 경찰에 각각 배치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이미정, 2009). 이에 따라 경찰은 2007년 ‘성폭력수사전문과정’(권창국, 2009), 2013년 ‘아동·장애인성폭력수사과정’등(경찰백서, 2013)을 개설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인증과정을 위한 2~3주 교육 이후에는 지속적인 면담자 훈련과 면담 피드백 과정은 실시되지 않고 있다. 또한 교육과 훈련의 효과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도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아동 수사면담의 시행을 위해서는 아동 진술과 접목된 학문적 지식과 법률적 절차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지식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아동 전담 수사면담자 훈련 제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수사면담자 훈련을 위한 제도적 준비의 필요성

바람직한 수사면담의 형태에 따른 아동 진술의 신빙성과 면담자의 면담 훈련 참여에 따른 수사면담의 질적 향상에 대해 학술 연구자, 현장의 실무자, 법조계 전문가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Lamb, Sternberg, Orbach, Esplin, & Mitchell, 2002, Lamb, Sternberb, Orbach, Hershkowitz et al., 2002). 바람직한 아동 수사면담 시행을 위해 면담자는 표준화된 수사면담의 세부 지침을 정확하게 따라야 하며, 실시된 수사면담 사례들을 토대로 동료 면담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개방적이고 비판적인 평가를 받음으로써 미흡한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능동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또한 면담자는 아동으로부터 사건의 실체적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정보를 획득하고, 획득된 아동 진술을 면담자 개인의 판단이나 편견으로 잘못 해석하지 않고, 이를 법정에서 논리적으로 변호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과학적 수사기법을 연마하기 위해 면담자들은 전문적인 면담자 훈련을 통해 다양한 범죄 사건들에 대해 법정에서 요구하는 증거의 형태, 핵심적 정보를 아동으로부터 획득하는 방법 등을 사전에 충분히 학습하고, 면담 훈련에 참여한 동료들 앞에서 모의재판 과정을 통해 이를 훈련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4세 이하의 어린 아동들을 대상으로 수사면담을 실시하는 경우 면담자는 이 연령대의 아동은 과거 사건에 대한 기억 회상에 한계가 있으며 어린 아동일수록 ‘스크립트 기억(scripted memory: 정형화된 상황이나 통상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에 관한 도식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기억)’에 의존한 회상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Hudson, Fivush, &

Kuebil, 1992).

수줍음이 많고 의사소통을 유난히 꺼려하는 아동을 면담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차별적 면담 형식에 대한 특별 훈련도 필요하다. 지난 경험들에 대해 서술하거나 질문 받는 것을 유난히 꺼려하는 아동의 경우 면담 과정에서 면담자로부터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정서적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아동 수사면담 자료들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와 같은 기질의 아동을 대상으로 수사면담이 실시된 경우 면담자의 정서적 지지의 수준이 오히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Hershkowitz et al., 2006). 한편 학대 경험에 대한 언급을 특히 꺼려하는 아동들, 수줍음이 많고 유난히 면담 진행이 어려운 아동들의 면담 사례들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면담자가 면담 훈련에 지속적으로 참가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수사면담의 질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Katz et al., 2010). 이는 면담자 훈련이 아동의 기질적, 성격적 개별 특성들에 따른 수사면담 시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면담자 훈련 및 피드백의 성공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동 전담 면담자들을 위한 사회적 지지와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면담자들은 과도한 업무와 관련 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 면담 훈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법정과 경찰에서 면담자 훈련의 주요 목적은 아동 진술의 신빙성 획득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아동 수사면담을 실시할 때 면담자들이 경험하는 실질적 고충에 대한 배려와 관심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국내에서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면담은 주로 여성 수사관이 담당하도록 권고되

고 있으나 실제 여성 수사관이 많지 않을뿐더러, 부족한 여성 수사면담자의 인력을 충원하고 훈련시키는 일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김중오, 2007). 따라서 면담자들이 면담자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면담 훈련을 통해 학습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아동 수사면담 과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면담자 훈련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 즉, 이상적인 아동 수사면담 시행을 위한 적절한 인력 배치와 면담 훈련 및 교육 제공은 사회 제도적 차원에서부터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 전체 논의 및 제언

국외에서는 아동 수사면담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학술 연구자들과 실무자들이 상호 협력하여 학문적 지식과 현장 경험들을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Stewart et al., 2011). 이들의 주된 관심사는 수사면담에 대한 아동의 공포와 거부감 완화를 위한 방안, 아동의 진술 동기 부여를 위한 적절한 라포 형성 방안, 연령에 따른 아동 진술의 역량 평가 방법, 비압시적 질문 제공 방법, 목격자 및 피해자 아동을 위한 단·장기적 보호 방안 등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아동의 언어, 인지, 사회 정서 발달 특징과 관련된 학문적 지식에 근거한 아동 진술의 심층적 이해는 아동의 연령 및 인지, 의사소통적 능력을 고려한 질문 제시를 가능하게 하고 이는 곧 아동 진술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바람직한 아동 수사면담 시행을 위해서는 면담자가 구조화된 수사면담 프로토콜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면담자 훈련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물론 올바른 수사면담을 위한 면담자의 내적 의지와 동기에도 불구하고 면담자 훈련을 위한 국가 예산의 부족, 훈련을 실시할 전문 인적 자원의 부족, 과도한 범죄 사건의 접수량 등 면담자 훈련의 지속적 참여에 걸림돌이 되는 현실적 문제들도 존재한다. 이외에도 우리나라 성폭력수사 체계상의 문제점으로는 크게 성폭력사건의 복잡한 수사절차와 수사기관의 중복조사를 들 수 있다. 또한 시행된 지 몇 년이 채 되지 않은 성폭력전담조사제도 역시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않아 운영상 미진한 부분들이 많다. 그 중에서도 성폭력전담면담자들의 불확실한 소속 및 업무 분장, 성폭력전담검사의 진술 녹화 지휘 소홀, 충분한 교육 훈련 미비, 관련 전문가 및 피해자지원시스템과의 연계 미비를 예로 들 수 있다(이미정, 2009에서 재인용). 따라서 면담자 훈련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현장의 실무자들 및 관련 행정부서에 적극적으로 전달되어 면담자 훈련의 참여가 아동 전담 수사면담자들의 주요 업무의 하나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전문성을 갖춘 수사면담은 신뢰로운 아동 진술을 확보하여 범죄사건 해결 과정에서 요구되는 신속하고 중요한 결정들을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사회복지사, 경찰관 등에 의해 반복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수사면담의 횡수를 최소화하여 아동의 이차적인 심리적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수사면담 실시를 위한 우수한 교육 과정을 구축하고 미래 전문 면담 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성폭력 전문 진술녹화관 양성을 위한 아동성폭력 진술녹화관 자격인증제를 시



행한 이래로 성폭력특별법상 성폭력 전문 진술녹화관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성폭력 수사전문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수사 전담 면담자들의 교육 기피로 2009년 기준으로 전체 아동 전담 면담자들 중 교육을 완전히 이수한 이는 1/3에 불과하다고 한다. 따라서 전문 과정 미이수자는 소속 불문하고 우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워크숍을 개최하여 면담자의 사기진작 및 책임의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자 특성에 맞는 조사기법 교육을 위한 성폭력수사 전문 과정 운영을 확대하고 ‘아동성폭력진술녹화관 자격 인증제’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여 전문성을 갖춘 진술 녹화관 자격 인증자를 배출할 필요가 있다(정성훈, 2010).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면담들 중에서도 아동 성폭력 및 신체 학대와 관련된 범죄 사건들의 경우 수사면담자의 역할은 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아동의 일상생활에 대한 면담과 달리 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면담의 결과는 아동 삶의 안정과 보호를 책임지는 법률적 판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올바른 수사면담을 위해서는 개별 면담자들의 강한 의지와 노력도 필요하지만 면담자들의 행정 업무 분산 및 아동 수사면담 훈련에 필요한 도구 제공 등 사회적 지지와 배려도 필요하다. 점차 국내에서도 과학적 근거를 중심으로 하는 수사면담 절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도 그와 관련된 법률적 제도 개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신뢰성 향상을 위한 수사면담자 훈련의 구체적인 정보와 효과성에 대해 경험적 자료 및 현장 조사 분석 등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을 시발점으로 학술 연구자들, 법조계 전문

가들, 현장 실무자들이 전문적 수사면담자 훈련의 중요성을 지각하고, 훈련의 구성과 효과성에 대한 심층적인 이론적 고찰 및 경험적 연구들을 보다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경찰백서 (2013). 경찰청, p162.
- 경찰청 (2013, 09).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피해 현황 보고 자료. <http://beaut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14396>
- 권창국 (2009). 성폭력범죄 피해아동 진술의 신뢰성 판단과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형사정책, 21(2), 63-94.
- 김시엽, 전우병, 김미영 (2006). 효율적인 수사면담을 위한 단축형 인지면담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0(10), 21-38.
- 김종오 (2007).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과학수사기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4, 105-132.
- 김태경, 윤성우, 서민재, 김경옥, 한은미 (2013). 성폭력 범죄피해 아동,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의 한국형 역할 모델. 피해자학연구, 21(2), 193-213.
- 민유숙 (2009). 아동피해자진술의 평가에 관한 법원의 관점. 범죄심리사자격관리위원회 공동심포지움 발표논문집, 49-60.
- 이미정 (2009). 아동성폭력 전담수사제의 효율적 대안에 관한 연구. 경찰연구논집, 4, 47-71.
- 이수정 (2009). 아동 대상 성범죄 조사절차의 미비점 및 개선방안 연구: 진술타당성 분석(Statement Validity Analysis)의 형사사법적

- 활용가능성. *한국경찰연구*, 8(3), 141-172.
- 이수정 (2010). 아동 성폭력 피해 진술에 대한 신빙성 분석도구들의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2), 105-117.
- 이승진 (2012). 아동 수사면담시 라포형성의 중요성에 관한 고찰: 국외 아동 증언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6(1), 75-86.
- 정성훈 (2010).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경찰수사 체제 개선방안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위논문.
- 조은경 (2010). 성폭력 피해 아동 진술신빙성 평가의 한계와 전망. *피해자학연구*, 18(2), 47-60.
- 황은영 (2010). 수사실무에서 아동 피해자 조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피해자학연구*, 18(2), 62-81.
- Akehurst, L., Koehnken, G., & Hofer, E. (2001). Content credibility of accounts derived from live and video presentations. *Legal and Criminological Psychology*, 6, 65-83.
- Baker-Ward, L., Gordon, B. N., Ornstein, P. A., Larus, D. M., & Clubb, P. A. (1993). Young children's long-term retention of a pediatric examination. *Child Development*, 64, 1519-1533.
- Bjorklund, D., Bjorklund, B., Brown, R., & Cassel, W. (1998). Children's susceptibility to repeated questions: How misinformation changes children's answers and their minds.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2, 99-111.
- Brown, D. A. (2011). The use of supplementary techniques in forensic interviews with children. In M. E. Lamb, D. J. La Rooy, L. C. Malloy, & C. Katz (Eds.), *Children's testimony: A handbook of psychological research and forensic practice* (2nd ed.) (pp. 217-249). New York: Wiley.
- Ceci, S. J., & Crotteau-Huffman, M. L. (1997). How suggestible are preschool children? Cognitive and social factor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6, 948 - 958.
- Cederborg, A. C., Orbach, Y., Sternberg, K. J., & Lamb, M. E. (2000). Investigative interviews of child witnesses in Sweden. *Child Abuse and Neglect*, 24, 1355-1361.
- Cyr, M., Lamb, M. E., Pelletier, J., Leduc, P., & Perron, A. (2006, July 5 - 7). *Assessing the effectiveness of the NICHD Investigative Interview protocol in Francophone Quebec*. Paper presented at the Second International Investigative Interviewing Conference, Portsmouth, UK.
- Dion, J., & Cyr, M. (2008). The use of the NICHD Protocol to enhance the quantity of details obtained by children with low verbal abilities in investigative interviews: A pilot study. *Journal of Child Sexual Abuse*, 17, 144-162.
- Finlayson, L. M., & Koocher, G. P. (1991). Professional judgment and child abuse reporting in sexual abuse cases.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22, 464-472.
- Fisher, R. P., Brennan, K. H., & McCauley, M. R. (2002). The cognitive interview method to enhance eyewitness recall. In M. Eisen, G. Goodman, & J. Quas (Eds.), *Memory and suggestibility in the forensic interview* (pp. 265-286). Mahwah, N.J.: Erlbaum.
- Hershkowitz, I., Fisher, S., Lamb, M. E., & Horowitz, D. (2007). Improving credibility

- assessment in child sexual abuse allegations: The role of the NICHD Investigative Interview Protocol. *Child Abuse & Neglect*, 31, 99-110.
- Hershkowitz, I., Lamb, M. E., Katz, C., & Malloy, L. C. (2013). Does enhanced rapport-building alter the dynamics of investigative interviews with suspected victims of intra-familial abuse?. *Journal Of Police And Criminal Psychology*, doi:10.1007/ s11896-013-9136-8
- Hershkowitz, I., Lamb, M. E., Sternberg, K. J., & Esplin, P. W. (1997). The relationships among interviewer utterance type, CBCA scores, and the richness of children's responses. *Legal and Criminological Psychology*, 2, 169-176.
- Hershkowitz, I., Orbach, Y., Lamb, M. E., Sternberg, K. J., & Horowitz, D. (2006). Dynamics of forensic interviews with suspected abuse victims who do not disclose abuse. *Child Abuse & Neglect*, 30, 753-769.
- Hershkowitz, I., Orbach, Y., Lamb, M. E., Sternberg, K. J., & Horowitz, D. (2001). The effects of mental context reinstatement on children's accounts of sexual abuse.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15, 235-248.
- Horner, T. M., Guyer, M. J., & Kalter, N. M. (1993a). Clinical expertise and the assessment of child sexual abus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2, 925-931.
- Horner, T. M., Guyer, M. J., & Kalter, N. M. (1993b). The biases of child sexual abuse experts: Believing is seeing. *Bulletin of the American Academy of Psychiatry and the Law*, 21, 281-292.
- Hudson, J. A., Fivush, R., & Kuebil, J. (1992). Scripts and episodes: The development of event memory.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6, 483-505.
- Jackson, H., & Nuttall, R. (1993). Clinician responses to sexual abuse allegations. *Child Abuse & Neglect*, 17, 127-143.
- Jackson, J. L. (1996). *Truth or fantasy: The ability of barristers and laypersons to detect deception in children's testimony*. Paper presented at the AP-LS Biennial Conference, Hilton Head Island, South Carolina.
- Köhnken, G., Milne, R., Memon, A., & Bull, R. (1999). The cognitive interview: A meta-analysis. *Psychology, Crime, and Law*, 5, 3-27.
- Katz, C., & Hershkowitz, I. (2010). The effect of drawing on the richness of accounts provided by alleged victims of child sexual abuse. *Child Maltreatment*, 15, 171-179.
- Katz, C., Hershkowitz, I., & Lamb, M. E. (2010). *Enhancing abuse disclosure by reluctant children: A test of the revised NICHD protocol*.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y Lay Society, Vancouver, Canada, March 2010.
- Lamb, M. E., & Fauchier, A. (2001). The effects of question type on self-contradictions by children in the course of forensic interviews.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15, 483-491.
- Lamb, M. E., Hershkowitz, I., Orbach, Y., & Esplin, P. W. (2008). *Tell Me What Happened: Structured Investigative Interviews of Child Victims and Witnesses*. Hoboken, NJ: Wiley.
- Lamb, M. E., Hershkowitz, I., Sternberg, K. J.,

- Esplin, P. W., Hovav, M., Manor, T., & Yudilevitch, L. (1996). Effects of investigative utterance types on Israeli children's respons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9*, 627-637.
- Lamb, M. E., Orbach, Y., Hershkowitz, I., Esplin, P. W., & Horowitz, D. (2007). Structured forensic interview protocols improve the quality and informativeness of investigative interviews with children: A review of research using the NICHD Investigative Interview Protocol. *Child Abuse and Neglect, 31*, 1201-1231.
- Lamb, M. E., Orbach, Y., Sternberg, K. J., Aldridge, J., Pearson, S., Stewart, H. L., Esplin, P. W., & Bowler, L. (2009). Use of a structured investigative protocol enhances the quality of investigative interviews with alleged victims of child sexual abuse in Britain.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23*, 449-467.
- Lamb, M. E., Orbach, Y., Warren, A. R., Esplin, P. W., & Hershkowitz, I. (2006). Getting the most out of children: Factors affecting the informativeness of young witnesses. In M. P. Toglia, J. D. Read, D. F. Ross, & R. C. L. Lindsay (Eds.), *Handbook of eyewitness psychology. Memory for events* (pp. 423-446). Mahwah, NJ: Erlbaum.
- Lamb, M. E., Sternberg, K. J., Esplin, P. W., Hershkowitz, I., Orbach, Y., & Hovav, M. (1997). Criterion-based content analysis: A field validation study. *Child Abuse & Neglect, 21*, 255-264.
- Lamb, M. E., Sternberg, K. J., Orbach, Y., Aldridge, J., Bowler, L., Pearson, S., & Esplin, P. W. (2006, July 5-7). *Enhancing the quality of investigative interviews by British police officers*. Paper presented at the Second International Investigative Interviewing Conference, Portsmouth, UK.
- Lamb, M. E., Sternberg, K. J., Orbach, Y., Esplin, P., & Mitchell, S. (2002). Is ongoing feedback necessary to maintain the quality of investigative interviews with allegedly abused children?.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6*, 35-41.
- Lamb, M. E., Sternberg, K. J., Orbach, Y., Hershkowitz, I., Horowitz, D., & Esplin, P. W. (2002). The effects of intensive training and ongoing supervision on the quality of investigative interviews with alleged sex abuse victims.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6*, 114-125.
- Leichtman, M. D., & Ceci, S. J. (1995). The effects of stereotypes and suggestion on preschoolers' reports. *Developmental Psychology, 31*, 568-578.
- Lyon, T. D. (1999). The new wave in children's suggestibility research: A critique. *Cornell Law Review, 84*, 1004-1087.
- Memon, A., Wark, L., Holley, A., Bull, R., & Köhnken, G. (1996). Reducing suggestibility in child witness interviews.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10*, 503-518.
- Oates, K., & Shrimpton, S. (1991). Children's memories for stressful and non-stressful events. *Medical Science and Law, 31*, 4-10.
- Orbach, Y., Hershkowitz, I., Lamb, M. E., Esplin, P. W., & Horowitz, D. (2000). Assessing the value of structured protocols for forensic

- interviews of alleged child abuse victims. *Child Abuse and Neglect*, 24, 733-752.
- Orbach, Y., & Lamb, M. E. (2007). Young children's references to temporal attributes of allegedly experienced events in the course of forensic interviews. *Child Development*, 78, 1100-1120.
- Plotnikoff, J., & Woolfson, R. (2009). *Measuring up? Evaluating implementation of Government commitments to young witnesses in criminal proceedings*. NSPCC: London.
- Poole, D. A., & Lindsay, D. (1998). Assessing the accuracy of young children's reports: Lessons from the investigation of child sexual abuse. *Applied & Preventive Psychology*, 7, 1-26.
- Quas, J. A. & Sumaroka, M. (2011). Consequences of Legal Involvement on Child Victims of Maltreatment. In M. E. Lamb, D. J. La Rooy, L. C. Malloy, & C. Katz (Eds.), *Children's testimony: A handbook of psychological research and forensic practice* (2nd ed.) (pp. 323-350). New York: Wiley.
- Schneider, W., & Bjorklund, D. F. (1998). Memory. In W. Damon, D. D. Kuhn, & R. S. Siegler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2. Cognition, perception, and language* (5th ed., Vol. 1, pp. 467-521). New York: Wiley.
- Sternberg, K. J., Lamb, M. E., Davies, G. M., & Westcott, H. L. (2001). The memorandum of good practice: Theory versus application. *Child Abuse & Neglect*, 25, 669-681.
- Stewart, H., Katz, C., & La Rooy, D. J. (2011). Training forensic interviewers. In M. E. Lamb, D. J. La Rooy, L. C. Malloy, & C. Katz (Eds.), *Children's Testimony: A Handbook of Psychological Research and Forensic Practice* (pp. 199-216). Wiley-Blackwell.
- Vrij, A., & Van Wijngaarden, J. J. (1994). Will truth come out? Two studies about the detection of false statements expressed by children. Expert evidence: The International digest of Human Behavior, *Science and Law*, 3, 78-84.
- Walker, N. E., Lunning, S., & Eilts, J. L. (1996). *Do children respond accurately to forced choice questions? Yes or no*. Paper presented at Recollections of Trauma: Scientific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NATO Advanced Study Institute, Port de Bourgenay, France.
- Walters, S., Holmes, L., Bauer, G., & Vieth, V. (2003). *Finding Words: Half a nation by 2010: Interviewing children and preparing for court*. Alexandria, VA: National Center for Prosecution of Child Abuse.
- Wells, G. L., & Loftus, E. F. (1991). Commentary: Is this child fabricating? Reactions to a new assessment technique. In J. Doris (Ed.), *The suggestibility of children's recollections* (pp. 168-171).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차원고접수 : 2013. 09. 30.

수정원고접수 : 2014. 01. 13.

최종게재결정 : 2014. 03. 05.

## **An Overview of Investigative Interview Protocol for Children and Interviewer's Training focused on NICHD protocol**

**Keumjoo Kwak**

Departmen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Seungjin Lee**

Institute of Psychological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An investigative interview of children has an imperative and critical responsibility in the context of children's testimony and it often determines how the rest of the investigation proceeds in the legal system. Consequently, concrete structures and systematic contents are required for appropriate as well as scientific investigative interview of children. Yet, unfortunately, there have been only a few articles published regarding training procedures that have methodical support and confirmed effectiveness for investigative interviewers of children in Korea. Thus, this paper offered to provide comprehensive information of a series of stages involved in training investigative interviewers of children which included a stage of building positive environment, a learning stage, a stage for open-discussion, and a stage for wrapping up. In addition, the structures of an individual and group interview feedback and the criteria for an ideal interview feedback were introduced. Ultimately, the goals of this paper were to emphasize the necessity of effective and systematized training procedures based on the results of scientific researches examining the most effective training methods for investigative interviewers for them to facilitate interviews of high standard and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a continuous training throughout their professional careers as investigative interviewers. It was also discussed that everyone on the team including administrators and managers who work in the related fields needs to perceive the importance of continuous effective training for investigative interviewers of children to attain the most reliable testimony.

*Key words : children's testimony, investigative Interview, NICHD protocol, interviewer's training, training feedback*